



제16회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가 열리는 전북대학교 진수당(사진 왼쪽). 진수당 안에서는 '청소년이 아름다워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' 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는 현수막이 걸려져 있다.

내면에 잠재된 패기와 끼 마음껏 펼쳤다

대회에 앞서



본격적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, 조종성 전주매일 대표이사(사진 왼쪽부터)와 신양근 전북대학교 부총장, 류형선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이사장 등이 축사를 하고 있다. 그리고 학생 대표 두명이 선서를 하고 있다(사진 맨 오른쪽).

무대 밖에선...



무대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. 음식 조리, 로봇, 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자신들의 재능을 맘껏 뽐냈다.



노래와 춤으로...



전북대학교 진수관 강당 안에서 서울 강남초 보컬 팀 등 예선을 치르고 올라온 전국 초·중·고 동아리 회원들이 기악, 전통무용, 댄스, 난타 등 열띤 공연을 벌였다.



노력의 결실



참가한 학생들 중 최우수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대상 시상식. 상을 받은 학생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듯 한자리에 모여 기뻐하고 있다.